

# 지방공항 전용 이스탄불 운수권 신설

- 한-튀르키예 간 항공회담 개최... 지방-이스탄불 전용 운수권 주3회 신설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ICAN 2024\* 기간 중, 튀르키예와 항공회담\*\*을 개최하여 지방공항-이스탄불(튀르키예) 전용 운수권 여객 주3회를 신설했다.

\* ICAO 회원국이 모여 각국이 수요에 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행사로, 올해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79개 회원국이 참석하여 10.21~10.25, 5일간 개최

\*\* (일시/장소) 10.22/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(수석대표) 한: 국제항공과장, 튀: 민간항공청장

□ 한국-튀르키예 노선의 여객 운수권은 현행 주11회로 설정되어 있는 가운데, 양국 노선은 항공사가 합산 주17회\*를 운항하며 탑승률이 85% 이상을 기록하는 등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.

\* 인천-이스탄불(여객): 대한항공 주3회, 아시아나 주3회, 터키항공 주11회

○ 현재는 인천-이스탄불 노선만 운항 중이나, 이번에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도 주3회를 별도로 신설하면서 향후 지방에서도 바로 이스탄불로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 심지영 국제항공과장은 “향후 항공사의 지방-이스탄불 운항 신청 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”이라면서, “앞으로도 장거리 노선을 포함한 지방공항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지역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	심지영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성경림 (044-201-4215)
		담당자	주무관	박초롱 (044-201-4216)